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시민이 안전한 남원 만든다

시, 보장 항목 22개로 확대...실질적 지원 늘려
사고 대비 든든한 사회안전망...보장 확대 지속

남원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총 2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시행해 2025년 5월말 기준 총 1365건 12억20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운영된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기간만 총 1041건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단 올해는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장 한도 총액이

일찍이 소진돼 현재는 보장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25년부터 상해의료비 항목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대체해 계약했고 보장항목을 총 22개로 확대해 더욱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상해의료비 대비 보장 한도액이 없으며 22개 항목 모두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항목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진단 4주 이상은 20만원, 6주는 40만원, 8주는 7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의사사고 사망 ▲강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화재 및 붕괴사고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폭넓고 실효성 있는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험 운영과 보장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미디어아트전시관 '피오리움' 작품.



남원시 “고향사랑기부하고 미디어아트 무료 관람하세요”

연말까지 미디어아트전시관 ‘피오리움’ 무료 입장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신규 개관한 미디어아트전시관 ‘피오리움’의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피오리움’은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한 실감몰입형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이다.

함파우 아트밸리, 광한루원 등과 함께 연계해 남원시 대표 가족 체류형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입장료는 1만2000원이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은 현장에서 올해 남원시에 10만원 이상의 고향사랑기부 내역(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 기부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무료입장할 수 있다.

무료입장 혜택은 기부금액 10만원 당 1명씩 적용된다. 예로 올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동반 1인까지 2인이 무료입장이다.

기부자는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에 더불어 3만원 담례품 무료배송과 전시관 무료입장 혜택

까지 총 14만2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벤트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기부자는 10만원 기부 때 전액 세액공제에 더불어 3만원 담례품 무료배송과 전시관 무료입장 혜택까지 총 14만2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자가 남원을 방문하고 남원의 정취가 담긴 미디어아트 전시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7월 신청자 모집

대출잔액 2%·최대 200만원 한도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행했던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라며 7월 한달간 올해 하반기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신혼기간 기준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횟수는 연 1회씩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늘어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며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뒤야 한다.

이외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기한 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군은 자격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지난 27일 열린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거점시설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식'에서 김관영(왼쪽 열번째) 전북도지사와 심덕섭(왼쪽 열한번째) 고창군수, 조민규(왼쪽 열두번째)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준공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

김치특화산업지구 거점시설

고창군의 역점사업인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의 핵심 거점시설인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완공됐다.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전북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된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의 김치 양념, 가공인력육성, 청년창업 등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1756㎡ 규모,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전통발효식품가공, 김치양념 생산, 가공인력육성 및 교육, 소가공시설, 농산물 및 음료 판매 등을 맡는 고창 서남부지역 가공 및 김치양념의 거점 시설로 활용된다.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는 지역내 핵심 거점 3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핵심거점은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공음면)-김치가공인력육성 및 원료가공거점 ▲김치 원료공급단지(대산면)-절임가공 및 저온저장고를 통한 원료거점 ▲김치산업지원센터(부안면)-고창식품산업연구원 내 설치, 김치가공 관련 기술지원, 제품개발 핵심거점 관리 등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에서 첫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시설이 고창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1차 원물 위주의 농업생산을 2·3차 가공산업으로 확장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가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전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1위

총 134만796명 기록...다양한 축제·콘텐츠 주요

정읍시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조사'에서도 내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는 총 134만796명, 월 평균 44만6932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년 1~4분기 누계 기준 월 평균 생활인구도 37만5235명으로 이 역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인구에 더해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방문객을 말한다.

이는 지역의 실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통 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읍시의 생활인구 증가 배경에는 10월 구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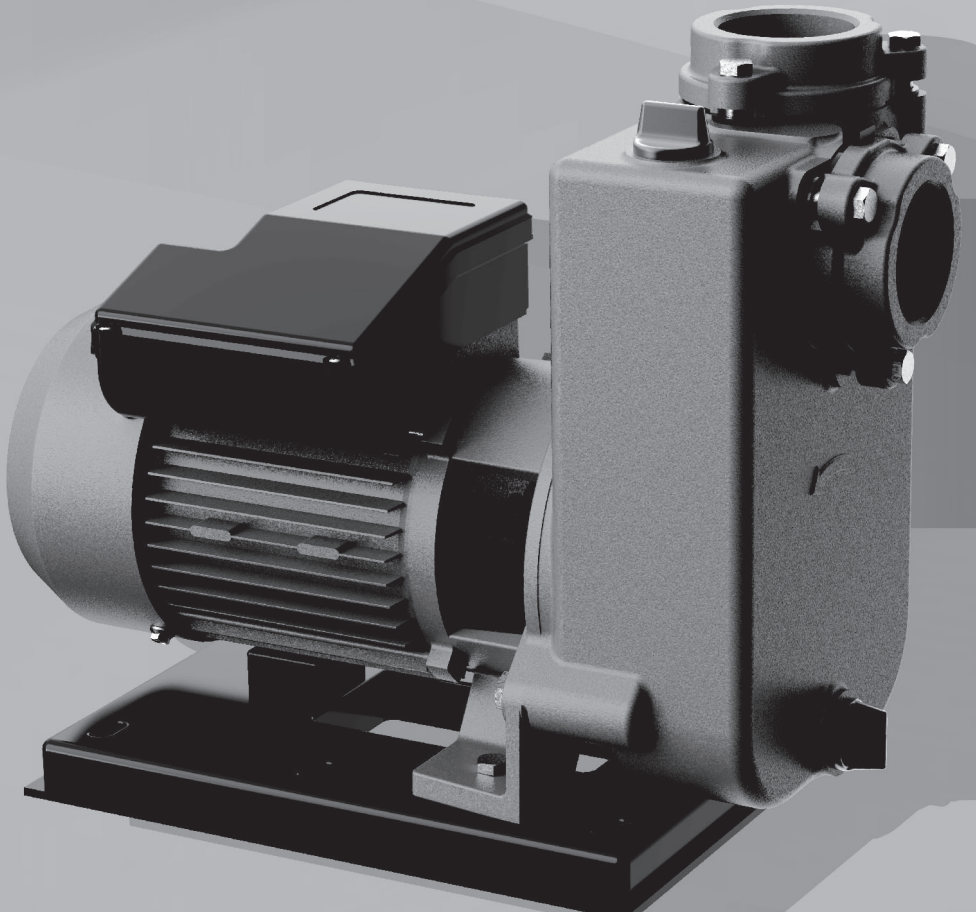
꽃축제와 정읍사문화제, 가을철 내장산 단풍관광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축제와 체험형 콘텐츠가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렸고 이는 곧 생활인구 확대에 이어졌다.

시에서는 사계절 머무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장호, 월영습지, 솔티숲 등 자연생태 공간 ▲천사하이어즈, 구절초 짚와이어, 문화광장 순환열차 등 체험형 관광 ▲용산호 수상데크길, 내장산 자연휴양림 같은 힐링 공간 ▲정읍사 달빛사랑 숲, 정읍천 미로분수 등 도심 휴식공간 마련에 집중해 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사계절 체류형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